

『金匱玉函經』에 관한 문헌적 연구

염용하 · 하기태 · 김준기 · 최달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 Literary Study on Jinguiyuhanjing

Yong Ha Lyeom, Ki Tae Ha, June Ki Kim, Dall Yeong Choi*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Jinguiyuhanjing, one of the Jing-Yue's three writings which were proofread by Lin-Yi et al. in the Song dynasty, can be regarded as the book composed of another text of *Shanghanlun*(傷寒論). The book has been quoted by some medical scholars in the Song and Jin dynasty, but it has been kept hiding by some collectors from the Yuan dynasty and has not been known to the public until republished by Shi-Jie Chen in the early Ching dynasty. As compared with *Shanghanlun*, *Jinguiyuhanjing* shows much difference in contents. Rather, it has a close similarity to *Qianjinyifang*(千金翼方) written by SunSaiMiao(孫思邈) in the Tang dynasty. The section 1 of *Zhengzhizongcongli*(證治總例), which may have edited by the man who have also edited *Jinguiyuhanjing* published between the Nanbei(南北) dynasty and the Sui(隋) and Tang(唐) dynasty, has a lot of resemblance to *Qianjinyifang*. Though the book and *Qianjinyifang* might have come from the same version, it seems that the edition and publication of *Jinguiyuhanjing* have no direct relation to those of *Qianjinyifang* because the former has more articles and prescriptions than the other has. *Jinguiyuhanjing* gives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scholars who study the text of the Song dynasty because the contents of the book particularly reveals a considerable difference to *Shanghanlun* published in the Song dynasty. Despite all the importances that the book have, however, no one in Korea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book ever before. We are sure that it is a valuable work to introduce and study the book in Korea.

Key words : *Jinguiyuhanjing*(金匱玉函經), *Shanghanlun*(傷寒論), *Qianjinyifang*, text.

서 론

『金匱玉函經』은 『傷寒論』의 異種 版本 가운데 하나로 宋代 林億 등이 校訂하여 간행한 후, 成無己의 『註解傷寒論』¹⁾ 등 여러 傷寒 관련 醫書에 이용되어 왔다. 특히 宋本 『傷寒論』과 체제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 中國에서는 宋本을 교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²⁾.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야 著者에 의하여 中國의 人民衛生出版社에서 1955년에 影印 出刊된 關本³⁾을 입수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金匱玉函經』에 대한 문헌적인 연구를 통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金匱玉函經』의 校訂에 대하여

* 교신저자 : 최달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cdydkom@dongguk.ac.kr Tel : 054-770-2650
접수: 2001/10/08 · 수정: 2001/11/26 · 채택: 2002/01/22

『傷寒論』 研究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王叔和가 仲景의 遺文을 모아 『傷寒雜病論』을 편집한 것과 宋代 校正醫書局에서 林億 등이 『傷寒雜病論』을 교정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 중에서 王叔和의 仲景 遺作에 대한 撰集은 그 篇次의 문제점이 여러번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王叔和의 功적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로 나뉘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⁴⁾. 그렇지만 王叔和가 遺失될 위기에 있던 仲景의 遺稿를 모아 후세에 전한 공적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⁵⁾. 반

- 1) 成無己註에 나타나는 “經曰：……”의 대부분은 『金匱玉函經』을 인용한 것이다. 예를들어 『註解傷寒論』「太陽病脈證并治上」에는 1조, 3조, 25조의 註에서 『金匱玉函經』을 인용하고 있다. (최달영 : 傷寒論釋講, 서울, 대성문화사, pp. 12, 15, 52, 1995.)
- 2) 劉渡舟 主編 : 傷寒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6, 1991.
- 3) 張仲景 : 金匱玉函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이 版本은 康熙 丙辛年에 上海의 陳世傑에 의해 出版된 것을 影印한 것으로 表題에 張仲景 先生, 金匱玉函經 眞本, 本衙藏板으로 기록되어 있다.
- 4) 各各 維護舊論派와 錯簡重訂派로 불리며 이 논쟁은 清代에 가장 활발했다(王琦 : 傷寒論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pp. 68, 77, 1988.)
- 5) 孫志遠 : 王叔和篇次『傷寒論』之功不可沒-『脈經』, 『傷寒論』相關條文

면 校正醫書局에서 진행된 仲景書의 교정작업에 대해서는 많은 醫家들이 仲景의 본의를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하며⁶⁾ 심지어 改惡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⁷⁾. 이러한 견해는 근본적으로 林億 등이 교정한 『傷寒論』과 『金匱要略』이 원래는 『傷寒雜病論』 혹은 『傷寒卒病論』⁸⁾이란 동일한 書物이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설은 현재까지도 통설이 되어 많은 『傷寒論』 관계서적에 인용되고 있다⁹⁾. 그러나 필자는 校正醫書局的 醫書 校訂에 관한 가장 일차적인 자료인 孫奇 등의 『傷寒論』, 『金匱玉函經』, 『金匱要略方論』 序文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학설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林億 등이 이미 『傷寒論』을 교정한 이후에 다시 그 異本人인 『金匱玉函經』을 교정하였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傷寒論』과 『金匱要略方論』은 1065년에 校訂 出版되었고, 『金匱玉函經』은 1066년에 校訂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¹⁰⁾. 그러나 세 책의 序文 가운데 『金匱玉函經』만이 治平 3년(1066년) 正月로 연도가 분명히 표기되어 있으며¹¹⁾ 먼저 『傷寒論』을 교정한 후에 『金匱玉函經』을 교정했다고 하였다¹²⁾. 또한 『金匱要略』의 序文을 살펴보면 먼저 『傷寒論』을 교정하고, 그 후에 『金匱玉函經』과 『金匱要略方論』을 순서대로 교정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¹³⁾. 따라서 『傷寒論』은 1065년, 『金匱玉函經』은 1066년, 『金匱要略方論』은 1067년 경에 校訂 出刊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校訂의 근거가 된 氏本에 관해서는 『傷寒論』은 開寶 연간¹⁴⁾에 節度使 高繼沖이 進上한 판본을 위주로 하였으며¹⁵⁾, 『金匱玉函經』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傷寒論』의 氏本과는 다른 판본을 기본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金匱要略方論』은 王洙가 館閣의 蠹簡에서 발견하였다는 『金匱玉函要略方論』을 氏本으로 하였다¹⁶⁾. 따라서 仲景의 原著자인 『傷寒雜病論』이 宋代 林億 등의 校訂에 의하여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나뉘어졌다는 통설은 정확한 견해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통설에 근거하여 林億

들이 傷寒과 雜病을 합부로 분리하였으므로 宋代 校正醫書局的 교정작업이 改惡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傷寒論』과 『金匱玉函經』이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校勘을 통하여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지 않고, 原本의 亡失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校訂하였다¹⁷⁾는 것은 宋代의 校訂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金匱玉函經』의 流傳 및 刊本에 대하여

林億 등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序文에서는 校勘의 근거가 된 氏本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金匱玉函經』의 序文에서는 氏本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한 宋代 이전에 『金匱要略』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林億 등이 序文을 통하여 王叔和가 撰次한 책이라¹⁸⁾고 언급한 이후, 대부분의 醫家들이 『金匱玉函經』을 王叔和가 편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¹⁹⁾. 그리고 宋代 林億 등이 교정하기 이전에는 『金匱玉函經』이라는 書名이 나타나지 않는데, 歷代의 書志目錄에서는 『隋書』, 『經籍志』나 『舊唐書』, 『藝文志』, 『新唐書』, 『藝文志』에도 『張仲景方』이나 『傷寒卒病論』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元代에 편찬된 『宋史』, 『藝文志』에 『金匱玉函八卷. 王叔和集.』²⁰⁾라고 최초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林億 등은 『金匱玉函』이라는 명칭이 『金匱錄』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였는데²¹⁾, 이 『金匱錄』은 『隋書』, 『經籍志』에 『金匱錄二十三卷. 目一卷. 京里先生撰.』²²⁾라고 최초로 언급되어 있고 『舊唐書』, 『藝文志』에는 『金匱仙藥錄三卷. 京里先生撰.』²³⁾, 『新唐書』, 『藝文志』에는 『京里先生金匱仙藥錄三卷.』²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이미 佚失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京里先生이 어떠한 인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隋書』와 『舊唐書』, 『新唐書』 모두 이 책을 神仙術이나 煉丹術 관련서적과 나란히 배열한 것으로 보면 道家 계열의 仙藥製造法과 관련된 서적으로 생각된다. 또한 『宋史』에서도 『金匱玉函經』과 함께 『金匱錄五卷.』²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傷寒論』이나 『金匱玉函經』과는 다른 책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隋書』 등에 『玉函針經一卷』²⁶⁾, 『玉函煎方五卷. 葛洪撰.』²⁷⁾이 있으나 『金匱玉函經』과는 다른 書物인 것으로 생각되며, 현존하는 醫書 가운데 唐代 杜光庭의 『玉函經』이 있으나²⁸⁾ 脈學에 관련되는 서적으로 『金匱玉函經』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단지 이러한 金匱, 혹은 玉函, 玉

辨析, 上海中醫藥雜誌, 第3期, pp.43-44, 1985.

- 6) 이런 주장을 한 사람으로는 清代 考證學派인 喻昌이 가장 대표적이다. (王琦: 尚書, p. 87)
- 7) 김용옥: 註解傷寒論十卷·解題, 서울, 통나무, p. 16
- 8) 이 書名에 대해서도 異論이 분분하나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언급하지 않으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가장 명확한 것으로 생각된다(趙洪鈞: 雜考, 中華醫史雜誌, 24(3): 178-182, 1994).
- 9) 朴憲在: 傷寒論概論, 서울, 약업신문사, pp.2, 5, 1986. 이러한 견해의 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徐大椿은 『金匱要略心典』의 序文에서 『當宋以前本合爲一, 自林億等校刊, 遂分爲兩焉.』이라고 하였다(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 3, 1997).
- 10)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본책), pp. 25, 24, 98-99
- 11) 治平三年正月十八日, 太子右贊善大夫臣高保衡·尚書員外郎臣孫奇·尚書司封郎中秘閣校理臣林億等, 謹上. (張仲景: 金匱玉函經·校正金匱玉函經疏, p. 6)
- 12) 臣等先校正『傷寒論』, 次校正此經, ……(張仲景: 金匱玉函經·校正金匱玉函經疏, p. 6)
- 13) 臣奇先校定『傷寒論』, 次校定『金匱玉函經』, 今又校成此書,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金匱要略方論序, pp. 13-14)
- 14) 宋太祖 趙匡胤의 세 번째 연호로 968년에서 976년까지 사용되었다.
- 15) 開寶中, 節度使高繼沖, 曾編錄進上, 其文理舛錯, 未嘗考正, 歷代雖藏之書府, 亦關於醫校(劉渡舟 主編: 傷寒論校注·傷寒論序, pp. 17-18).
- 16)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金匱要略方論序, pp. 13-14

17) 其文理或有與『傷寒論』不同者, 然其意義皆通聖賢之法, 不感臆斷, 故併兩存之(張仲景: 金匱玉函經·校正金匱玉函經疏, p. 6).

18) 深乎細考前後, 乃王叔和撰次之書, ……(張仲景: 金匱玉函經·校正金匱玉函經疏, p. 6)

19) 그러나 최근에는 王叔和가 편찬하였다는 설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것은 後述하기로 한다.

20) 李茂如: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59, 1994.

21) 緣仲景有『金匱錄』, 故以金匱玉函名, 取寶而藏之之義也(張仲景: 金匱玉函經·校正金匱玉函經疏, p. 6).

22) 李茂如: 尚書, p. 70

23) 李茂如: 尚書, p. 146

24) 李茂如: 尚書, p. 152

25) 李茂如: 尚書, p. 159

26) 李茂如 외: 尚書, p. 64

27) 李茂如 외: 尚書, p. 68

28)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p. 171

賈 등의 명칭이 『金匱玉函經』을 편집한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 뜻은 林億 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寶而藏之”하여 함부로 누설하면 안되는 귀중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金匱玉函經』은 ‘金匱’라는 이름 때문에 後代 醫家들에 의하여 『金匱要略』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어 宋代 晁公武²⁹⁾의 『群齋讀書後志』 卷二에서는 “『金匱玉函經』八卷. 後漢·張仲景撰, 晉·王叔和集. 設問答雜病形證脈理, 參以療治之方, 仁宗朝³⁰⁾, 王洙得於館中, 用之甚效, 合二百六十二方”이라고 하였는데³¹⁾, 이것이 『金匱玉函經』과 『金匱要略』을 동일한 書物로 본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林億 등이 교정한 『金匱玉函經』이 八卷인 것은 맞지만 115方を 수록하고 있으며, 王洙가 館閣에서 발견한 蠹簡을 교정한 雜病書는 『金匱要略』으로 3卷 25篇 262方を 수록하고 있다. 이후 元代 馬端臨의 『文獻通考·經籍』³²⁾에서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으며, 清代에도 周揚俊이 元明間 趙以德的 『金匱要略方論衍義』를 補註한 책의 題名을 『金匱玉函經二註』라 하였고³³⁾ 姚標恒도 『古今僞書考』에서 “『金匱玉函經』又名『金匱要略』”이라고 하였다³⁴⁾. 이러한 오류는 모두 『金匱玉函經』이 『傷寒論』이나 『金匱要略』처럼 널리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宋代까지는 『金匱玉函經』이 여러 의서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北宋末에서 南宋初까지 활동했던 許叔微(1079-1154)는 『普濟本事方』의 “下之而脈弦者生論證”條에서 『金匱玉函經』을 인용하고 있으며³⁵⁾, 『傷寒九十論』에서 2회³⁶⁾, 『傷寒百證歌』에서 모두 16회 인용³⁷⁾하고 있다. 또 南宋初의 郭雍(1102-1187)은 『傷寒補亡論』의 “小兒瘡疹下”條에서 『金匱玉函經』을 인용하고 있으며³⁸⁾, 朱肱의 『活人書』 35問에서도 『金匱玉函經』을 인용하고 있는데³⁹⁾ 이 조문은 『傷寒論』에는 나타나지

않고 『金匱玉函經』⁴⁰⁾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成無已도 『註解傷寒論』에서 『金匱玉函經』을 인용하여 『傷寒論』을 校勘하는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⁴¹⁾. 이와같이 南宋代까지는 『金匱玉函經』을 인용하고 있는 서적이 나타나지만 元代 이후에는 引用書籍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元代 醫家인 王好古도 『醫壘元戎』의 ‘活人舉敗散’條에서 『金匱玉函經』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²⁾. 또한 明代 趙開美는 『仲景全書』의 序文에서 “『仲景全書』既刻已, 復得宋板『傷寒論』焉. 予固知成注非全文, 及得是書, 不啻控壁, 轉卷間而後知成之荒也. 因復併刻之”⁴³⁾라고 하였는데, 宋板『傷寒論』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金匱玉函經』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또한 출전 조차 불분명한 『傷寒類證』을 수록하면서⁴⁴⁾ 그보다 더 중요한 『金匱玉函經』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金匱玉函經』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清代의 陳世傑이 康熙丙申(1716년)에 何焯이 소장하던 手抄宋本 『金匱玉函經』을 刊行할 때에도 “惜以訛脫字多甚, 或不能以句. 既無他本可校, 乃博考衆籍以相證, 左補亡滅, 誤十得八九稿”⁴⁵⁾라하여 이미 毀損이 심하였으며 비교할 다른 版本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희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陳世傑과 何焯 모두 手抄宋本이라고만 하였지 그 原本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校正醫書局에서 『金匱玉函經』을 校訂한 治平3年(1066)으로부터 550년이라는 시간을 隔하고 있으므로 그 眞僞를 의심받기도 하였다⁴⁶⁾.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宋代 醫書에 인용된 『金匱玉函經』과 현존하는 陳世傑의 『金匱玉函經』의 條文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明代 이후에도 다른 醫書에 인용된 흔적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焦竑의 『國史·經籍志』⁴⁷⁾, 陳第의 『世善堂藏書目』⁴⁸⁾, 清初 錢謙益의 『絳云樓藏書目』⁴⁹⁾ 등에 모두 『金匱玉函經』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清初까지도 일부 藏書家들이 『金匱玉函經』을 소장한 것이 확인되며, 따라서 何焯이 手抄宋本 『金匱玉函經』을 소장하였다가 陳世傑에게 주어 刊行하게 하였다는 序文의 기록은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陳世傑이 『金匱玉函經』을 出刊한 이후에도 널리 전파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乾隆 47년(1782년)에 완성된 『四庫全書』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四庫全書總目提要』의 『金匱要略論注二十四卷』에서도 “是書亦名『金匱玉函經』”⁵⁰⁾이라하여 『金匱要略』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9) 字는 子止, 號는 昭德, 鉅野 출신으로 대대로 학자 출신의 집안으로 藏書가 풍부하였다. 紹興년간(1131-1162)에 進士에 급제하여 관직이 敷文閣直學士, 除臨安少尹에 이르렀다. (李茂如: 상계서, p. 414)

30) 仁宗의 재위는 1023년에서 1063년까지이다.

31) 李茂如 외: 상계서, p. 416

32)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은 없으며 “晁氏曰: …”이라하여 晁公武의 말과, “陳氏曰: …”이라하여 宋代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直齋書錄解題』에서는 『金匱玉函經』이 아니라 『金匱要略』 三卷으로 되어 있다(李茂如 외: 상계서, p. 219, 425).

33) 故仲景既著『傷寒論』垂萬世法, 而復出其心思, 著『金匱玉函經』, 爲雜證矩範, …… (周揚俊: 金匱玉函經二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 15)

34) 李茂如 외: 상계서, p. 520

35) 予曰: “『金匱玉函』云: 循衣妄撮, 怵惕不安, 微喘直視, 脈弦者生, 澁者死. 微者但發熱譫語, 承氣湯主之. ……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128, 1987).

이 조문은 『傷寒九十論』 兩手攪空證八十六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許叔微: 許叔微傷寒論著三卷·傷寒九十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11, 1993).

36) 許叔微: 許叔微傷寒論著三卷·傷寒九十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77, 211, 1993.

37) 許叔微: 許叔微傷寒論著三卷·傷寒百證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8-20, 43-45, 47-48, 59, 79, 1993.

38) 仲景金匱玉函之書千百不存一二安知時行疫疾不忘逸於其間乎.(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中國書店, 1992, 20卷 1面.)

39) 『金匱玉函』云: 虛者十補, 物一瀉(朱肱 著, 임진석 역: 活人書, 서울, 아티전, p. 96, 1998).

40) 張仲景: 金匱玉函經, p. 16

41) 각주 1 참고.

42) 『金匱玉函』, 卽仲景之昔稱也. 『金匱要略』, 亦出玉函, 故朝幸但言金匱處, 便爲仲景方也. (王好古: 東垣十種醫書·醫壘元戎, 서울, 대성문화사, 1991, p. 655)

43) 張仲景 著, 趙開美 篇: 仲景全書·仲景全書序, 서울, 대성문화사, p. 14, 1991.

44) 又古紙中檢得『傷寒類證』三卷(張仲景 著, 趙開美 篇: 상계서, p. 14)

45) 張仲景: 金匱玉函經, 重刻張仲景金匱玉函經序, p. 1

46) 李辰生: 評『金匱玉函經』考, 中醫雜誌, (4):46-48, 1955.

47) 金匱玉函經八卷, 張仲景. (李茂如 외: 상계서, p. 266)

48) 金匱玉函經八卷, 漢·張仲景作. (李茂如 외: 상계서, p. 494)

49) 玉函經. 八卷. 漢·張仲景撰, 仲景名機. (李茂如 외: 상계서, p. 497)

50) 李茂如 외: 상계서, p. 555

그후 中國에서는 1930년대 초에 徐衡之, 章成之 등이 陳世傑本을 校勘하여 復刻하였으나 수량이 많지 않았으며, 1955년에서 1956년에 걸쳐 人民衛生出版社에서 8000부를 影印하여 出版하였다⁵¹⁾. 筆者는 그 중에서 1955년에 出版된 第1版의 2刷本 印數 3,001-5,000의 北京版⁵²⁾을 최근 中醫研究院 圖書館을 통하여 入手하였다. 또한 이 책은 日本에 전해져서 山田正珍이 『傷寒論集成』(1789)을 저술할 때 『玉函經』을 參校本으로 삼아 1조를 보충하였으며⁵³⁾, 이외에도 平田篤胤의 『金匱玉函經解』 10권과 山田業廣의 『玉函經證治總例箋注』 1권이 있다고 한다⁵⁴⁾. 그리고 江戸時代의 구마모토(熊本)의 유명한 私立醫學館인 村井琴山の “原診館”⁵⁵⁾에서는 學則인 ‘七規之制’ 중 ‘學’의 條目中 『金匱玉函經』을 “濟生之良方”이라하여 매우 중요시하였다⁵⁶⁾. 이상으로 살펴볼 때 日本에서는 陳世傑이 重刊한 『金匱玉函經』이 일찍부터 전래되었으며 또한 이를 중요시하여 연구가 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金匱玉函經』과 다른 傳本과의 비교

『金匱玉函經』은 宋本 『傷寒論』과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六經⁵⁷⁾의 篇名에 있어서 『傷寒論』은 「辨××病脈證并治」와 같이 되어 있으나⁵⁸⁾, 『金匱玉函經』은 「辨××病形證治」와 같이 되어 있어⁵⁹⁾ 각기 脈, 形이란 글자가 다르다. 또 다른 『傷寒論』의 古本인 『脈經』本에서는 六經으로 분류되지 않고 「病可……」, 「病不可……」로만 표기되어 있으며⁶⁰⁾, 『千金翼方』에서는 「太陽病用……湯法」 혹은 「××病狀」으로 되어 있다⁶¹⁾. 六經의 篇名 만으로 비교한다면 『脈經』本이나 『千金翼方』本에 비해서는 『傷寒論』이나 『金匱玉函經』이 더 完整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篇次면에서 살펴본다면, 傷寒을 六經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仲景의 自序로 알려진 “論曰: ……”⁶²⁾로 시작되는 내용이 없으며, 王叔和가 추가하였다고 여겨지는 「序例」, 「平脈」 편이 없다. 대신에 卷一

에 「證治總例」 편⁶³⁾과 七卷에 「方藥炮製」 편⁶⁴⁾이 추가되어 있으며, 「辨痙濕喝」 편이 「辨脈」 편 앞에 놓여 있다⁶⁵⁾. 또한 『傷寒論』의 「厥陰病」 편에 포함되어 있는 厥, 利, 嘔, 噦 등도 「辨厥利嘔噦病形證治」 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⁶⁶⁾, 「厥陰病」 편에는 “厥陰……”으로 시작하는 4개의 조문만이 있다⁶⁷⁾. 또한 『傷寒論』에도 卷末에 附錄되어 있는 不可의 篇들 중에서 汗吐下 외에 可溫, 不可火, 可火, 不可灸, 可灸, 不可刺, 可刺, 不可水, 可水, 熱病陰陽交併 등의 편이 추가되어 있다⁶⁸⁾. 이상의 篇들은 王叔和의 『脈經』에도 수록되어 있으므로⁶⁹⁾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傷寒論』과 달리 處方을 條文아래 併記하지 않고 卷七·八에 따로 115개의 處方을 附記하였다⁷⁰⁾.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證治總例」 편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千金要方』의 「治病略例」, 「診候」 편과 매우 유사하며⁷¹⁾ 仲景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 여러군데 있으므로⁷²⁾ 仲景이 직접 저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佛敎의 學說인 地水火風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⁷³⁾ 佛敎가 興

盛한 南北朝의 말이나 唐代 이후의 글로 볼 수 있다. 錢超士⁷⁴⁾은 考證을 통하여 ‘地水火風’, ‘四百四病’⁷⁵⁾과 같은 용어가 406년에 번역된 『大智度論』, 415년에 번역된 『金光明經』, 567년에 최초로 번역된 『阿毘達磨俱舍論』에서 처음 나타나므로 이 책이 편집된 상한선을 406년으로 잡고 있으며, 『金匱玉函經』이 『傷寒論』과 달리 ‘堅’ 자를 諱⁷⁶⁾하지 않으므로 하한선을 581년(隋初)로 보았다⁷⁷⁾. 그러나 唐代에 나타난 『千金翼方』에서도 ‘堅’ 자를 諱하지 않았으므로⁷⁸⁾ 반드시 隋代 이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⁷⁹⁾, 또한 「證治總例」는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地水火風’ 등의 불교용어가 406년에 처음 나타난다고 해서 『金匱玉函經』 전체의 연대 상한선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章太炎은 「證治總例」

63) 張仲景 : 金匱玉函經, pp. 13-19

64) 張仲景 : 上卷, p. 86

65) 張仲景 : 上卷, pp. 20-21

66) 張仲景 : 上卷, pp. 52-55

67) 張仲景 : 上卷, p. 52

68) 張仲景 : 上卷, pp. 57-65

69) 沈炎南 主編 : 脈經語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34-304, 1993.

70) 張仲景 : 上卷, pp. 86-107

71) 孫思邈 : 千金方·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pp. 2-4, 1994.

72) 「證治總例」 전체에서 “張仲景曰: ……”이 2회, “仲景曰: ……”이 1회 나타난다.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15-16)

73) 經云: 地水火風, 合和成人. 凡人火氣不調, 舉身蒸熱. …… (張仲景 : 上卷, p. 13)

74) 凡四氣合德, 四神安和, 人一氣不調, 百一病生. 四神動作, 四百四病, 同時俱起. …… (張仲景 : 上卷, p. 13)

75) 『傷寒論』에서는 ‘堅’ 자를 쓰지 않고 모두 ‘硬(革更)’이나 ‘固’ 자를 쓰고 있는데, 章太炎이 최초로 隋文帝 楊堅의 이름을 諱한 것으로 보았다. 『千金方』과 『金匱要略』에서는 모두 ‘堅’ 자를 쓰고 있다. (洪貫之 : 『傷寒論』傳本異同考釋, 中醫藥研究, (1) : 56-57, 1991에서 재인용)

76) 錢超士 : 『金匱玉函經』四考, 中醫雜誌, 第6期, pp. 41-44, 1989.

77) 예를 들면 『千金翼方』卷九의 小柴胡湯 조문에서 ‘或脇下痞堅’이라 하여 ‘堅’ 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孫思邈 : 上卷, p. 79).

78) 『傷寒論』이 ‘堅’ 자를 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千金翼方』이나 『金匱玉函經』이 隋代 이전에 편집되었다는 것의 증거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宋本 『傷寒論』의 早期傳本이 隋代에 1차적으로 整理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51) 錢超士 : 『金匱玉函經』四考, 中醫雜誌, 第6期, pp. 41-44, 1989.

52)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109

53)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분책), p. 102

54) 潘桂娟, 樊正倫 編著 :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 167-168, 1994.

55) 이 私塾은 村井琴山の 부친인 村井見補가 처음 설립한 것으로 최초의 명칭은 1736년에서 1756년에는 復陽洞이었으나, 1756년에 구마모토 번에서 再春館을 설립하고 村井見補가 그곳의 의학교수가 되면서 再春館과 통합되었다. 1761년 村井見補가 사망하고 당시 29세이던 村井琴山는 再春館의 직책을 사임하고 교토(京都)의 吉益東洞에게 수개월을 사사받고 돌아와 復陽洞을 재건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1798년에 “原診館”으로 개칭하였다(潘桂娟, 樊正倫 編著 : 上卷, p. 167).

56) 潘桂娟, 樊正倫 編著 : 上卷, p. 185

57) 이 용어는 『傷寒論』에서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정확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따르기로 한다.

58) 劉渡舟 主編 : 傷寒論校注·目録, pp. 1-3

59)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7

60) 沈炎南 : 脈經語釋·目次,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2-13, 1993.

61) 孫思邈 : 千金方·千金翼方·目次, 北京, 華夏出版社, p. 7, 1994.

62) 이것도 『康平本』에서는 “集論曰: ……”로 시작하고 있어서 과연 仲景의 自序인지 의심받고 있다(김옥옥 : 上卷, pp. 2-3).

를 孫思邈이 『千金要方』 卷九에서 언급한 “江南諸師”의 글로 보았으나⁷⁹⁾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다만 篇末에 “此要略說之, 非賢物傳, 請秘而用之. 今以察色診脈辨病救疾, 可行合宜之法, 併方藥共成八卷, 號爲『金匱玉函經』. 其篇目次第, 列於卷首.”⁸⁰⁾라고 한 것으로 보아 『金匱玉函經』을 편집한 사람이 이 편을 첨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條文의 수에 있어서는 六經病 부분⁸¹⁾만 보더라도 『金匱玉函經』에는 410개의 조문이 있으며 『傷寒論』에는 398개의 조문이 있고 『千金翼方』에는 386개의 조문이 있어서, 『金匱玉函經』이 『千金翼方』에 비해서는 24 조문이 『傷寒論』에 비해서는 12 조문이 더 많다. 예를들면 『辨陰陽易差後勞復病形證治』의 맨 끝에 “病後勞復發熱者, 麥門冬湯主之.”라는 조문이 추가되어 있는데⁸²⁾, 이 조문은 『傷寒論』이나 『金匱要略』⁸³⁾에는 없으며, 『千金翼方』에는 「陰易病已後勞復」편에 이 조문이 없다⁸⁴⁾. 또 『金匱玉函經』 「辨太陽病形證治」에 “太陽病, 三四日不吐下, 見衄乃汗之”라는 조문이 있는데⁸⁵⁾ 이것은 현존하는 『傷寒論』에는 보이지 않고 『千金翼方』에는 나타난다⁸⁶⁾. 條文의 내용면에서는 현존하는 『傷寒論』보다는 『千金翼方』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傷寒論』의 太陽病提綱으로 알려진 제1조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 而惡寒”이라는 조문이 『千金翼方』과 마찬가지로⁸⁷⁾ “太陽之爲病, 頭項強痛, 而惡寒”, “太陽病, 其脈浮”라는 두 개의 조문으로 나뉘어 있다⁸⁸⁾. 그리고 『金匱玉函經』에서는 「辨太陽病形證治」편의 처음을 『傷寒論』의 7조에 해당하는 “夫病有發熱而惡寒者, 發於陽也……”로 시작하고 있으며⁸⁹⁾, 「辨陽明病形證治」편도 『傷寒論』과 달리 “陽明之爲病, 胃家實是也”로 시작하는⁹⁰⁾ 등 條文의 배열 순서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金匱玉函經』에서는 『千金翼方』과 같이 『傷寒論』의 “鞅” 혹은 “固”로 표기된 글자를 모두 “堅”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陽明病의 ‘固瘕’도 ‘堅瘕’로 되어 있다⁹¹⁾. 錢超^尙은 이것을 隋文帝 楊堅의 이름을 諱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더 考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太陽病의 141조의 寒實結胸證에 『傷寒論』에서는 “與三物小陷胸湯, 白散亦可服”이라 하였으나 『金匱玉函經』에서는 『千金翼方』과 같이⁹²⁾

“與三物小白散”이라 하였으며⁹³⁾, 陽明病에서 179조의 少陽陽明을 『千金翼方』과 『金匱玉函經』에서는 모두 微陽陽明으로 표기하였다⁹⁴⁾. 그러나 『千金翼方』과도 차이를 보이는 조문이 있는데, 예를들어 역대 注家들의 논란이 되어온 176조의 “傷寒, 脈浮滑, 此表有熱, 裏有寒, 白虎湯主之”라는 조문은 『千金翼方』에서는 『傷寒論』과 동일하나⁹⁵⁾ 『金匱玉函經』에서만 “……白通湯主之.”로 되어 있으며, “舊云白通湯, 一云白虎湯者恐非. 舊云以下出叔和.”라고 하여⁹⁶⁾ 林億 등이 교정할 때에도 이미 상당수의 傳本에서 白虎湯으로 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86조의 “傷寒三日, 陽明病大.”와 271조의 “傷寒三日, 少陽脈小者, 欲已也.”는 『金匱玉函經』에서는 陽明病篇과 少陽病篇이 아니라 太陽病篇에서 “傷寒三日, 陽明脈大者, 爲欲傳”, “傷寒三日, 少陽脈小者, 爲欲已.”으로 되어 있으나⁹⁷⁾ 『千金翼方』에서는 이 조문이 『傷寒論』과 마찬가지로 陽明病篇과 少陽病篇에 소속되어 있다⁹⁸⁾. 처방면에 있어서도 『傷寒論』은 모두 113方이고⁹⁹⁾ 『千金翼方』은 107方이며, 『金匱玉函經』에는 『傷寒論』의 처방에 又大陷胸湯方¹⁰⁰⁾과 麥門冬湯¹⁰¹⁾이 추가되어 115方으로 되어 있다. 처방명도 『傷寒論』과 『千金翼方』에서는 “……丸”으로 되어 있지만 『金匱玉函經』에서는 모두 “……圓”으로 되어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이와같이 『金匱玉函經』은 『傷寒論』에 비하여 孫思邈의 『千金翼方』 卷九와 卷十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條文이나 處方의 수량 및 條文의 내용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金匱玉函經』은 宋本의 『傷寒論』과는 분명히 다른 경로를 통하여 傳承된 판본으로 볼수 있으며, 『千金翼方』과 『金匱玉函經』은 『傷寒論』에 비해서는 판본상 유사성이 높으므로 유사한 祖本을 바탕으로 편집되어 전래된 서로 다른 傳本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傷寒論의 연구에 있어서 宋本 『傷寒論』만을 墨守하는 태도는 옳지 않으며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校勘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 版本 중에서도 『金匱玉函經』의 판본으로서의 가치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金匱玉函經』은 宋代 林億 등이 교정한 3부의 仲景書 가운데 하나로서 『傷寒論』(1065)을 먼저 교정한 뒤인 1066년에 교정되었다. 이 책은 『傷寒論』의 異本이지만 오랫동안 『金匱要略』(1067)과 동일한 書物로 오해되어 왔으며, 『傷寒論』과는 서로 다르게 전래된 傳本을 기초로 성립된 책으로 생각된다. 『金匱玉

79) 李茂如 외 : 상계서, p. 1454

80)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19

81) 霍亂과 勞復篇을 포함한 수이다.

82)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56

83) 麥門冬湯에 대해서는 金匱7-10條에 “火逆上氣, 咽喉不利, 止逆下氣, 麥門冬湯主之.”의 1조문만 있다(何任 : 상계서, p. 76).

84) 孫思邈 : 상계서, p.

85) 張仲景 : 상계서, p. 27

86) 孫思邈 : 千金翼方, p. 76

87) 孫思邈 : 千金翼方, p. 76

88) 張仲景 : 상계서, p. 26

89) 張仲景 : 상계서, p. 26

90) 張仲景 : 상계서, p. 41

『千金翼方』의 경우에는 이 조문이 陽明病의 시작으로 되어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조문의 내용이 “陽明之爲病, 胃中寒是也”로 되어 있다. 寒은 實의 誤字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孫思邈 : 千金翼方, p. 84).

91)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42 ; 孫思邈 : 千金翼方, p. 84

92) 孫思邈 : 千金翼方, p. 81

93)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41

94) 孫思邈 : 상계서, p. 84 ;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41

95) 孫思邈 : 千金翼方, p. 83

96) 張仲景 : 상계서, p. 41

97)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27

98) 孫思邈 : 千金翼方, p. 84, 87

99) 내용이 없는 禹餘糧丸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12方이다.

100) 처방내용은 “桂枝四兩, 甘遂四兩, 大棗十二枚, 瓜蒌實一枚去皮, 人參四兩. 又五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胸中無堅, 勿服之.”로 되어 있다. (張仲景 : 金匱玉函經, p. 67)

101) 처방내용은 『金匱要略』과 거의 동일하다(何任 : 상계서, p. 76).

函經』은 宋代의 몇몇 醫家들에 의하여 인용되었으나 元代 이후에는 별로 알려지지 못하고 몇몇 藏書家の 손에서 보존되어오다가 淸初 陳世傑에 의하여 復刊되어 日本에 전래되었으며, 1955년경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하여 보급되었다. 이 책은 篇次와 내용에 있어서 『傷寒論』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唐代 孫思邈의 『千金翼方』과 유사한 점이 많다. 또한 「證治總例」 1편도 『千金翼方』의 내용과 유사하고 南北朝에서 隋唐사이에 『金匱玉函經』을 편집한 사람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千金翼方』과는 동일한 祖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千金翼方』과 다른 條文이 있으며 條文과 處方이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千金翼方』과는 별도로 편집되어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郭雍 : 傷寒補亡論, 北京, 中國書店, 1992.
2. 김용옥 : 註解傷寒論十卷·解題, 서울, 통나무, 1997.
3. 朴憲在 : 傷寒論概論, 서울, 약업신문사, 1986.
4. 潘桂娟, 樊正倫 編著 :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5. 孫思邈 :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6. 孫志遠 : 王叔和篇次『傷寒論』之功不可沒-『脈經』『傷寒論』相關條文辨析, 上海中醫藥雜誌, (3) : 43-44, 1985.
7. 沈炎南 : 脈經語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8. 王琦 : 傷寒論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88.
9. 王好古 : 東垣十種醫書·醫壘元戎, 서울, 대성문화사, 1991.
10. 尤怡 :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1. 劉渡舟 主編 : 傷寒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2. 李茂如 :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3. 李辰生 : 評『金匱玉函經』考, 中醫雜誌, (4) : 46-48, 1955.
14. 張仲景 : 金匱玉函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15. 張仲景 著, 趙開美 篇 : 仲景全書·仲景全書序, 서울, 대성문화사, 1991.
16. 錢超士 : 『金匱玉函經』四考, 中醫雜誌, (6) : 41-44, 1989.
17. 趙洪鈞 : 雜卒考, 中華醫史雜誌, 24(3): 178-182, 1994.
18. 朱肱 著, 임진석 譯 : 活人書, 서울, 아티전, 1998.
19. 周揚俊 : 金匱玉函經二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0. 최달영 : 상한론석감, 서울, 대성문화사, 1995.
21. 何任 主編 :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2.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분책],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23. 許叔微 :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24. 許叔微 : 許叔微傷寒論著三卷·傷寒九十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25. 許叔微 : 許叔微傷寒論著三卷·傷寒百證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26. 洪貫之 : 『傷寒論』傳本異同考釋, 中醫藥研究, (1) : 56-57, 1991.